

국토부는 관계부처와 동일한 시장 인식 하에,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비즈, 7.19) >

◆ 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진단, 시장과는 반대로 읽고 있다

□ 부동산 시장상황 인식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은 없습니다.

-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“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, 서울·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”고 말했으며,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최근 주택시장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와 인식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, 8월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 (044-201-3317)
		담당자	사무관	장은석 (044-201-4129)
담당 부서 <기획재정부>	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	책임자	팀 장	김준하 (044-215-2850)
		담당자	사무관	정동현 (044-215-2852)